

착종된 근대*

서구의 동양철학 연구서 번역에 나타난

근대와 전근대의 이중주

김 시 천(한국철학사상연구회)

<요약문>

철학은 본래 서구적 기원을 갖는 것이다. 20세기 동아시아의 일반적인 변화를 근대화 특장지을 수 있다면, 이러한 현상은 단지 경제나 정치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학술의 방법과 구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화의 영역에서 유일한 예외로 간주되는 것이 동양철학 분야이다. 실제로 20세기의 일반적 추세와 달리 서구 학계의 동양철학 연구서에 대한 번역은 비교적 늦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야 본격화된다.

하지만 번역된 학술 서적의 종류와 분야, 그리고 번역자의 태도나 전문성 등을 여러 각도에서 고찰해 보면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즉 서구화라는 일반적 추세와 달리, 동양철학에 대한 서구 학계의 저술 가운데 번역된 것들은 주로 우리 학계의 관심이나 방향과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 이들 속에서 우리는 동양중심주의나 원전중심주의라 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근대화를 지향하였던 20세기 한국의 상황과는 달리 복고적이고, 보수적이며 때론 과거에 대한 향수마저 풍기는 기이한 역현상을 드러낸다. 이러한 역현상 속에서 우리는 학문적 주체성을 읽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왜곡된 오리엔탈리즘이나 객관적 합리적 가치를 부인하면서 동양적인 그 무엇을 만병통치약으로 긍정하려는 기이한 현상을 읽을 수도 있다.

주 제 : 한국철학, 동양철학, 현대철학, 번역과 철학

검색어 : 동양학, 번역, 서구의 동양철학, 근대성, 오리엔탈리즘

* 이 논문은 2002년도 기초학문 육성 인문사회분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2002-073-AM1024)에 의한 것임

1. 들어가는 말

지금으로부터 1,700여 년 전 중국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운동이 일어났다. 이미 나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원숙한 문명을 성취한 중국 사회에 인도로부터 새로운 종교가 전파되었던 것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 우주 전체가 하늘과 땅을 부모로 하며 만물이 모두 그 자식들과 같다고 보는 우주적 가족주의 세계관을 지닌 중국 사회에서 이 종교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수백 여 년 간에 걸친 수많은 지식인들의 노력과 정치 지도자들의 후원 아래 이 종교는 결국 중국 문명에 편입되었다. 이 종교는 불교이다. 오늘날 선(禪)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불교는 국제적으로 ‘중국불교’(Chinese Buddhism)라는 학술 용어로 불릴 정도로 그 나름의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음은 물론, 중국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전통 사상인 삼교(三教) 가운데 하나로 꼽을 정도로 중국 문명의 일부가 되었다.

중국에 불교가 정착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듯이 불교의 토착화 과정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무엇보다 장구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진 ‘번역’이었다. 격의(格義) 불교라는 말이 잘 보여주듯이 중국 사회에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외래 종교인 불교가 정착하는 데에는 번역의 힘이 컸다. 여기서 ‘격의’란 불교의 용어를 중국 고전에 나오는 용어로 번역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불교의 ‘nirvana’는 위진(魏晉) 시대이래 유행하던 무위(無爲)로 번역되었고, 또 반야(般若) 사상의 핵심 용어인 ‘śūnyatā’는 처음에 『노자』의 ‘무’(無)로 번역되었다가 나중에 ‘공’(空)으로 정착되었다. 이와 같이 격의란 『노자』나 『장자』 등의 중국 고전에 나오는 용어를 통해 불교를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번역의 사전적 정의는 “한 나라의 말로 된 글의 내용을 다른 나라 말로 바꿔 옮김”이라 하듯이, 번역의 성립 요건에는 언어 전통을 달리하는 두 나라를 전제한다. 즉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를 우리말인 한글로 옮기는 경우와 같이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를 때 우리는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현대 우리의 경우는 이와 같은 단순한 규정만으로 번역을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전 한문으로 된 문헌을 현대의 우리말로 옮긴다 할 때의

그 번역은 더 많은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우선 한자(漢字)에 대한 태도가 문제다. 80년대까지만해도 대부분의 대학 교재는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었다. 『육법전서』의 용어 대부분이 한자로 되어 있듯이 이것은 아직도 지속되는 관행이다. 우리의 전통에서 한자가 아직도 상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글은 단순히 한자의 발음 기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에서 보듯이 한자를 단순하게 외래 문자로 인식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 즉 한자가 명확하지 않은 한글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현대 한국어의 성립 자체가 번역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아주 간단한 예로 전통 고전에 나오는 ‘性’을 우리는 ‘본성’이라고 번역하여 이해한다. 이 때 ‘본성’이란 말 또한 ‘本性’이란 한자어에 그 의미의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 ‘本性’이란 조어는 고전적 용례로부터 빌어 온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구어 ‘nature’를 번역하기 위해 성립된 조어이다. 과거에는 ‘性’이란 하나의 한자로 표현하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두 개의 한자로 ‘本性’이라 표기한다. 또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괄호를 두고서 ‘(nature)’라고 병기하거나 또는 ‘(human nature)’라고 하면서 인간 본성을 가리킨다고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여기서 이와 같은 복잡한 이야기들을 나열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우리가 흔히 번역이라 할 때의 그 ‘번역’이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옮김이라는 규정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번역과 관련된 문제의 복잡한 양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과연 ‘性’을 ‘본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과연, 서구에서 ‘性’을 ‘nature’ 또는 ‘human nature’로 번역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 ‘본성’이란 말은 ‘性’에 가까운 것인가 아니면 ‘nature’ 또는 ‘human nature’에 가까운 것인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중간에 위치하는 것인가?

현대 한국어의 창출 과정에서 주체적, 자생적, 반성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일본에서 번역된 용어의 대부분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번역’이 문제가 될 때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문제들을 드러

낸다. 서구의 동양 철학 연구서—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이 글에서는 주로 영어로 된 저술에 한정된다—의 번역은 지금까지 지적하였던 문제점들을 논하는데 아주 유용한 사례가 된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논의했던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서구 동양철학 연구서의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국 철학의 ‘근대성’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우선 그간 번역 출간된 문헌들의 현황과 분포, 표면적인 분류 작업을 한 후에 몇 가지 논점에 따라 이른바 동양 철학과 ‘근대성’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서구 학계의 동양철학 연구서 번역의 현황과 시기별 특징

20세기 동아시아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근대화 또는 서구화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치적으로 유교적 왕도 정치 이념에 기반한 왕정 체제에서 서구에서 기원하는 근대적 민주제로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물질적 차원은 물론 정신적, 문화적 차원까지 서구화에 골몰해 왔다. 20세기 초반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서구 사회의 놀라운 과학적 성취와 민주적 제도에 열광하였으며, 이러한 열광은 비록 제국주의적 횡포에 시달리며 왜곡된 면이 있긴 했지만 대체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서구적 가치와 규범이 전범으로 자리잡았으며, 경제적으로도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다. 전통적 제도나 규범은 서구적 제도와 규범으로 대체되었고, 학문의 방식이나 태도 또한 서구적 방식은 늘 규범적 모델이었다.¹⁾

전통적 가치의 대부분은 불합리, 미신, 봉건이라는 이름 아래 비판되거나 그 의미가 부인되었고, 사회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교육 제도조차 철저하게 서구화되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거의 모든 것이 서구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인 서구화 속에서도 유일하게 동양 철학은 서구화를 외면하는 듯이 동양 철학에 대한 연구는 철저하게 동양 중심적 성격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1980년대 이전까지 서구 학계

1) 김시천, 『철학에서 이야기로—우리 시대의 노장 읽기』, 책세상, 2004. 제1장 참조.

의 동양 철학 관련 저술의 번역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적어도 서구인이 동양 철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자료의 입수나 번역의 필요성이 없어서인지 단정할 수 없다.

서구의 동양학은 16세기의 마테오 리치 이래 대략 400여 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적 축적의 과정이 있었다. 동양 철학의 경우 이미 19세기 말 레그(James Legge)는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은 물론 『노자』와 『장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동양 철학의 고전들을 영어로 번역한 바 있으며, 이후 서구 학계에서는 수없이 많은 번역과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적어도 ‘근대적’ 관점에서 볼 때 서구 학계의 동양 철학 연구는 한국보다 몇 십 년은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6년에 풍우란(馮友蘭)의 『A Short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가 번역되기까지 서구 학계에서 유통되는 동양 철학 관련 서적은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²⁾

따라서 이 글에서는 80년대와 90년대 그리고 2000년-2004년 5월에 이르는 3시기로 구분하여, 서구의 동양 철학 관련 저술의 번역서들과 이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1) 80년대의 번역의 현황과 분석

우선 80년대에 번역된 서구인에 의한 동양 철학 관련 서적의 번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여기서는 불교 관련 자료와 순수하게 종교적 의도에서 저술된 종교학 관련 문헌, 한국 철학 관련 문헌은 필자의 연구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괄호안의 년도는 원저의 출간년도이다).

- 1981 도널드 먼로 지음, 김덕중 옮김, 『현대중국의 인간이해』(1977), 청아출판사.
- 1984 H. G. Creel 저, 이동준·이동인 공역, 『중국 사상의 이해—孔子로부터 毛澤東에 이르기까지』(1953), 경문사.

2) 적어도 필자의 단행본 관련 자료 조사에 의하면 그러하다. 신남철(申南澈)이 풍우란의 영어 논문, 「왜 支那에는 科學이 없나—支那 哲學의 歷史와 結果에 對한 一解釋」(『春秋』, 1941)을 번역 소개한 선구적 업적에 비하면 이러한 현상은 참 기이한 일로 여겨진다.

- 1984 조셉 니담 著, 李錫浩·李鐵柱·林禎堃 譯, 『中國의 科學과 文明 I』 (1956), 을유문화사.
- 1984 조셉 니담 著, 李錫浩·李鐵柱·林禎堃 譯, 『中國의 科學과 文明 II』 (1956), 을유문화사.
- 1984 조셉 니담 著, 李錫浩·李鐵柱·林禎堃 譯, 『中國의 科學과 文明 III』 (1956), 을유문화사.
- 1986 C. P. 피츠제랄드 지음, 이병희 옮김, 『中國의 世界觀』 (1969), 민족문화사.
- 1987 마이클 로이, 이성규 역, 『古代中國人の 生死觀』 (1982), 지식산업사.
- 1987 왕치찬 著, 李恩奉 譯, 『近代 中國宗教의 動向』 (1953), 형설출판사.
- 1988 비탈리 에이. 루빈 지음, 임철규 옮김, 『중국에서의 개인과 국가—공자, 묵자, 상양, 장자의 사상 연구』 (1976), 현상과 인식.
- 1988 슈츠스키 지음, 오진탁 옮김, 『주역연구』 (1960), 한겨레.
- 1988 H. G. 크릴, 이성규 역, 『공자, 인간과 신화』 (1949), 지식산업사.
- 1988 홈스 웰치 지음, 윤찬원 옮김, 『老子와 道教—道の 分岐』 (1965), 서광사.

이 시기에 번역된 문헌은 대략 12권으로 중복되는 니담의 과학사 저술을 제외하면 9종에 그치고 있다. 번역된 서적의 분야는 대체적으로 중국 사상 분야에 해당하지만, 이들 문헌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서구 학계의 분야 가운데 ‘동양학’에 속하는 저술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역자들의 번역 동기 또한 다양하다. 『현대 중국의 인간 이해』를 옮긴 김덕중은 외교학과 출신으로서 “중공의 정치 사회화 내지는 정치 문화에 관한 전문 서적은 우리의 경우 그리 많지 않으며, 중공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업적 또한 집적된 바가 별로 없다....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국내적인 수요를 조금이나마 충당키 위해서였다.”(3쪽)고 번역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 같은 정치 외교학자인 이병희의 『중국의 세계관』 또한 중국적 세계관의 이해의 필요성에 의해 번역을 하였다고 동기를 밝히고 있다. 이병희나

김덕중의 번역서들은 역자 자신들의 실무나 강의, 소개의 필요성에 의해 번역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이런 면에서 이성규의 『고대 중국인의 생사관』과 『공자』의 번역은 눈 학술적 성격이 강하다. 이성규의 두 번역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주로 성실한 학적 자세를 위주로 한다. 『공자』의 경우에는 현대 동아시아 역사에서 공자와 관련된 역사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복잡한 문제 상황을 전술한 후에, “그렇다면 과연 공자 사상에 현대적 가치를 부여할 만한 요소가 있는가, 아니면 그런 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청산해야 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인가?”(1997, 제2판, 6쪽)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크릴의 『공자』가 지닌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하여 『논어』의 단구들이 새로운 감명으로 읽혀질 것(8-9쪽)이라고 번역의 동기를 말하고 있다.

『고대 중국인의 생사관』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성규는 자신의 학문 활동에서 스스로 드는 의구심인, “고대 중국 역사를 연구해서 무엇하는가?”라는 문제 의식에 대해 로이의 『고대 중국인의 생사관』이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이야기한다. 더 나아가 역자는 로이의 저서가 실질적인 고대 중국인의 정신 세계에 접근하는 유용한 길잡이라고 평가한다. 비교적 긴 내용이지만 논의를 위해 인용해 본다.

“종래 중국 고대 사상사 연구는 전통적인 諸子의 분류법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이한 이론의 특성과 그 비교만 강조되었고, 그 결과 당시 사람들은 儒·墨·法·道家 등의 어느 하나에 충실히 속하며 마치, 예컨대 儒家라면 儒家經典에 보이지 않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였고, 流派가 다르면 상호배타적인 측면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이른바 ‘유가적’, ‘도가적’, ‘법가적’ 등으로 구분되는 사고 체계와 이론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한 인간에게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요소가 아닌 한 개인의 사고나 행동속에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그 시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상이한 사고 체계가 공통으로 갖는 기반과 아울러 상이한 요소가 동적으로 交互 작용하는 실제로 파악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실제 전통적인 諸子思想의 分類法을 과감히 탈피하지 못하면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로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는 새로 발견된 고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먼저 전통적인 諸子 분류법의 맹점을 지적하고, 漢代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접근 태도를 ‘유가적’, ‘도가적’, ‘합리주의적’인 것으로 구분하면서도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정신의 세계에서 上古의 신화적인 세계관이 점차 이성에 의한 세계의 이해로 변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추적한다.(8쪽)

이와 같은 서술에서 볼 때, 적어도 역자가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역자의 논의에서 전통적인 중국적 역사 이해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면서 실제에 가까운 역사 이해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찬원의 『노자와 도교』 또한 이와 비슷한 논조를 보인다. 역자는 “서양인들에게는 흥미 있는 것일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진부하게 보일 수 있는” 책이고, 따라서 “지은이의 관점이 서양적일 수 있다는 한계는 분명히 고려되어야” 하면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면을 보고 있다”(인용은 모두 2쪽)는 이유가 번역의 동기임을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윤찬원은 “서양 철학 용어와 동양 철학의 용어 사이에 의미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점까지 지적한다. 서구 학계의 시각이 지닐 수 있는 장점은 수용하겠지만, 그것이 지니는 한계 또한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80년대에 출간된 번역서들의 외면적인 공통점은 무엇보다 거시적인 동양학적 관점이나 방법론의 차원의 색다름, 또는 동아시아 학계의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수 있다는 기대에서 비롯된 번역이 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아직 어느 번역서에서도 서구 학계의 동양학 전통이 지니는 고유한 맥락이나 상대성에 대한 체계적 인식을 소개하거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에까지 이른 경우는 없는 듯하다. 그리고 그 이전 시기에 비하면 숫적으로 꽤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은 미미한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2) 90년대의 번역의 현황과 분석

90년대는 80년대에 비해 숫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였고, 번역된 문헌의 주제나 내용면에서도 훨씬 다양화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

다. 총 21종에 달하는 번역서의 숫자상의 증가 이외에도 모우트의 책과 줄리아 칭의 책은 거듭 번역되고 있다는 점, 전문적인 번역자의 출현 등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 기간 동안 출판된 번역서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1991* 후레드릭 W. 모오트 지음, 권미숙 옮김, 『중국문명의 철학적 기초』(1971), 인간사랑.
- 1993 R. 도오손 지음, 김용현 옮김, 『공자』(1981), 지성의 샘.
- 1993 막스 칼텐마르크, 장원철 옮김, 『노자와 도교』(1965), 까치.
- 1993* 줄리아 칭 지음, 임찬순·최효선 역, 『유교와 기독교—동서 문화의 비교 연구』(1978), 서광사.
- 1993* 허버트 핑가레트 지음, 송영배 옮김, 『공자의 철학—서양에서 바라 본 禮에 대한 새로운 이해』(1972), 서광사.
- 1994 두 웨이밍 지음, 권미숙 옮김, 『한 젊은 유학자의 초상—청년 왕양명 1472-1509』(1976), 통나무.
- 1994* F. W. 모트 지음, 김용현 옮김, 『중국의 철학적 기초』(1971), 서광사.
- 1994* 줄리아 칭 저, 변선환 옮김, 『유교와 기독교』(1978), 분도출판사.
- 1994 F. C. 코플스턴 지음, 안종수 옮김, 『철학과 문화』(1980), 고려원.
- 1996 리하르트 빌헬름 쓰고, 진영준 옮기다, 『주역강의』(1979), 소나무.
- 1996 벤자민 슈월츠 지음, 나성 옮김, 『중국 고대사상의 세계』(1985), 살림.
- 1997 박연수 편역, 『양명학이란 무엇인가』, 경희종합출판사.
- 1997 O. 브리에르 지음, 표정훈 옮김, 『중국현대철학 50년사』(1949), 토마토.
- 1997 Chang Carsun 저, 이진표 역, 『신유학사상의 전개 I』(1958), 형설출판사.
- 1997 Chang Carsun 저, 이진표 역, 『신유학사상의 전개 II』(1962),

형설출판사.

- 1998 Wm. 시어도어 드 배리 지음, 표정훈 옮김, 『중국의 ‘자유’ 전통—신유학 사상의 새로운 해석』(1983), 이산.
- 1998 조셉 니덤 지음, 콜린 로넌 축약, 김영식·김제란 옮김, 『중국의 과학과 문명: 사상적 배경』(1978), 까치.
- 1998 줄리아 칭, 이은선 옮김, 『지혜를 찾아서—왕양명의 길』(1976), 분도출판사.
- 1998 피에르 도단 지음, 김경애 옮김, 『공자』(1960), 한길사.
- 1998 추 차이·윈버거 차이 지음, 김용섭 옮김, 『유가 철학의 이해』(1973), 소강.
- 1999 사라 알란 지음, 오만중 옮김,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1997), 예문서원.
- 1999 앙리 마스페로 지음, 신하령·김태완 옮김, 『도교』(1971), 까치.
- 1999 뚜 웨이밍 지음, 정용환 옮김, 『뚜 웨이밍의 유학 강의—하늘과 인간 그리고 휴머니즘』(1976, 1979, 1993), 창계.

90년대와 80년대를 비교할 때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번역된 저술들의 전문성과 다변화이다. 특히 영어권 문헌의 번역만 있었던 80년대와 달리 90년대에는 앙리 마스페로, 막스 칼텐마르크, 브리에르와 같은 프랑스 출신 학자와 독일 출신 학자의 저술까지 번역,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³⁾ 또한 서구 학계의 학문적 성과를 계속하여 소개하는 전문적 번역자의 출현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우트와 뚜 웨이밍을 번역한 권미숙, 도오손과 모우트를 번역한 김용현, 드 배리와 브리에르를 소개한 표정훈은 모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한 학자들로서 전문적인 관점에서 서구 학계의 저술을 번역, 소개하고 있다.

번역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상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보인다. 예를 들어 공자의 생애나 사상을 다룬 저술이 3권—도오손, 핑가레트, 도단—이나 출간된 것은 공자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 재미를 선사해

3) 물론 이 가운데 브리에르와 빌헬름의 저술은 영역본을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마스페로와 칼텐마르크, 도단의 것만이 영어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주었고, 여기에 왕양명에 관한 전문 연구서 2권, 슈윙츠나 사라 알란의 저술의 번역은 두드러진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줄리아 청, 뚜 웨이밍과 같이 같은 저자의 저술이 2권이나 번역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으며, 사라 알란 같은 독특한 연구 이력을 가진 학자의 저술 또한 번역 소개되는 풍성한 면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90년대 번역서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80년대 번역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번역자의 주체적 시각이 명시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예가 송영배의 『공자의 철학』이다. 전체 8쪽에 걸친 비교적 긴 <옴긴이의 말>에서 역자는 먼저 저자의 시각과 요점을 정리한 후에 저자의 논의가 지니는 의의와 문제점을 함께 지적함으로써 단순한 소개에 그치는 것이라 아니라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역자는 핑가레트가 공자 철학의 핵심을 예(禮)로 파악하면서 인간이 인간다움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식에의 진지한 참여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의 참신성을 긍정한다. 즉 핑가레트의 공자 이해는 개인과 공동체가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가 지닌 규범의 역할을 긍정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규범성에의 진지한 참여야말로 인간다운 힘인 인(仁)의 신성스러움이 드러난다는 매우 이상적 대안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자는 이러한 참신성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그러한 해석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한다. 역자는 핑가레트의 견해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핑가레트는 공자 사유의 생생한 전거가 되는 춘추(春秋) 시대라는 고대 중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역사학적·문화학적 이해와 연관 지어 공자의 참모습을 파악했다기보다는, 현대 언어 분석 철학자로서 그 자신이 『논어』 텍스트 독해 자체에 결정적인 비중을 두고서 공자의 사상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과거 인물의 참모습을 오늘날 요동치는 현대적 역사 공간 속에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함에 있어서, 그 인물의 ‘과거적’ 사유 활동의 의식적·무의식적 배경 및 그 철학적 세계관 형성의 생생한 전거가 되는 생활 세계 혹은 역사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그 생활 현장에서 일단 유리되어 오로지 그가 남긴 텍스트에만

의존함으로써, 결국 그의 언명들을 하나의 초역사적으로 ‘보편타당한 의미’로 파악해 내는 데에는 핑가레트 자신이 상당한 ‘철학적 문제 의식’과 ‘학적 방향성’의 삽입이라는—또 하나의 자기 한계가 주어지는—부담을 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 책을 옮긴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8쪽)

이 같은 역자의 비판은 사실상 핑가레트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90년대에 번역된 두 웨이밍, 장군매, 줄리아 칭, 추 차이와 윈버그 차이, 드 배리 등은 유학이 지니는 한계나 현대적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은 거의 무시한 채 오로지 중국적 지혜의 찬양, 서구적 문화 전통과의 융화 가능성에 골몰하는 이른바 넓게 보아 문화 보수주의적 시각의 대변자들이기 때문이다. 앞의 다섯 저자가 모두 중국 출신인데 반해 드 배리는 미국 출신의 학자이지만 그의 세련된 연구 방법론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유학이 지니는 위계적, 봉건적 질서의 정당화 논리로 기능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는 눈감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처럼,⁴⁾ 중국 출신의 학자들과 커다란 차이는 없다.

송영배와는 약간 다르지만 표정훈의 번역 작업 또한 주목할 만한 진전의 증거로 간주할 수 있다. 그가 번역한 『중국현대철학 50년사』와 『중국의 ‘자유’ 전통』은 번역이 단순한 말 옮김이 아니라 그 자체 탁월한 학문의 장임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표정훈은 유물-유심의 이원적 도식으로 보는 대륙 중국 학계의 시각이나 객관-주관으로 보는 많은 연구자들의 시각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물-유심의 틀, 또는 객관-주관, 실증-내성과 같은 이분법은 서양의 실체 형이상학의 전통 위에서나 유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족적이고 자기 원인적인 존재, 곧 실체란 철저히 서양 형이상학의 특수한 아이

4)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책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 岩間一雄 지음, 김동기·민혜진 옮김, 『중국 정치사상사 연구—중국 봉건 사상의 정치경제사적 분석』(서울: 동녘, 1993), 291-301쪽. 岩間一雄은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드 배리의 입장을 비판한다. “드 배리 교수에 있어 유교란 바로 ‘권위와 부친적 온정주의’에 의해 ‘정치상의 안정성’을 실현하고, 그것에 의해 산업상의 눈부신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여기서는 ‘정치상의 안정성’이 수반될 때, 거기에 개인의 자유가 질식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암묵적 전제로 되어 있다.”(299쪽)

템이다. 특수한 문화 아이템(cultural item)에 입각한 관점을 보편적인 관점 내지는 설명틀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문화적인 폭력이다. 사실 이 책에서도 그러한 폭력에 희생당하는 중국 철학의 가련한 모습이 눈에 띈다. 지은이가 “동양 전통에 기원을 둔 사상”이라 분류한 여러 사상가와 사상에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사상에 대한 서양 철학적 격의(格義)라고 눈감아 버리기에는 너무나 처참하다. (물론 철학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현대중국철학 50년사』, 200-201쪽)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역자가 번역까지 하게 된 동기는 간단하다. 우선 저서가 지니는 학술적 가치와 자료적 의의 그리고 저자와 달리 아직 명확한 학술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역자로서 연구 과정의 일환으로 번역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겸손함은 그 후에 이루어진 『중국의 ‘자유’ 전통』에서는 한 차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자유’ 전통』은 단순한 번역서라기보다는 역자의 제2의 창작물로 간주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우선 체제상으로 역자는 18쪽에 달하는(221-238쪽) 상당히 많은 역자주를 첨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역자주의 성격이 저술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한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저자의 서술에서 맥락이 불분명하거나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생략된 배경에 대한 친절한 해설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거나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중국, 일본, 한국의 다양한 저술이 소개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 번역본이 있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서지 사항을 밝혀줌으로써 그 자체가 하나의 ‘책 속의 책’ 구실을 한다. 이어지는 <옴긴이의 말>(239-245쪽)에서는 저자가 취한 방법론에 대한 해설, 저자의 학적 입장, 그리고 저자의 입장이 현대 학술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의미, 가치, 한계까지 논의하고 있음을 물론 저술과 관련된 학계의 다양한 논의에 대한 서지 사항까지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표정훈의 번역 작업은 한국 학계의 현주소가 얼마나 성장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뿌듯함을 느끼게까지 한다.

90년대의 서구 동양 철학 관련 저술의 번역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이상과 같이, 서구 학계나 저자의 독자적인 시각이나 연구 전통을 객관화

하면서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한 배경 소개가 더불어 제시된다는 점에 있다. 미국 지성사 연구의 전통을 소개하면서 슈왈츠를 번역한 나성의 경우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차원에서 번역의 꼼꼼함이나 질, 관련 주석의 친절도 등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⁵⁾ 이와 같은 점에서는 2000년대에 번역된 문헌들 또한 90년대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제와 내용면에서 원저가 갖는 성격들은 상당히 다

- 5) 이와 같은 추세에서 볼 때 리하르트 빌헬름의 『주역강의』는 역자의 전문성에서 문제가 있는 번역서이다. 이 번역서에는 원저의 서지 사항도 실려 있지 않고 번역 또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번역서 29-30쪽에서 “유럽에서는 순수 존재를 근본적인 것으로 보지만, 중국에서는 변화를 본질로 본다. 중국인의 입장은 불교와 존재론의 가운데 입장이다. 모든 존재를 허상으로만 여기는 불교와, 존재를 현상의 배후에 실재하는 것으로 보는 존재론은 서로가 말하자면 극과 극의 대립이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시간이라는 요소를 추가시킴으로써 이 양쪽 입장을 절충하는데 성공하였다.”라고 옮기고 있으나 이는 원문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번역이다. 역자가 저본으로 삼은 영역본은 다음과 같다. “While in Europe pure Being is taken as fundamental, the decisive factor in Chinese thought is the recognition of change as the essence. The Chinese position is a middle one between Buddhism and the philosophy of existence. Buddhism, which regards all existence as no more than illusion, and the philosophy of existence, which regards existence as real behind the illusion of becoming, are, so to speak, polar opposites. Chinese thought endeavors a reconciliation by adding the element of time.” 원저자의 의도는 시공을 초월한 순수 존재만을 실재적인 것으로 긍정하는 서구적 존재론과 모든 현상적 존재자들을 허상으로 보는 불교적 사유와 달리 중국 사상은 변화를 시공간 안에서의 변화를 읽어내려 함으로써 서구적 존재론과 불교적 세계관을 화해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데에 있다. 역자의 번역은 지나치게 간결성을 추구함으로써 저자의 의도를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또한 36쪽에서 역자는 “창조와 수용이라는 두 개의 본질은 이 세계에 드러난 기본적인 대립 관계이다”라고 하는데, 이 문장의 원문은 “These two principles, the Creative and the Receptive, are the basic opposites present in the world.”라고 되어 있다. 원저의 내용에서 이 부분은 삼획패인 건괘(☰)와 곤괘(☷)를 설명하고 있으며, 빌헬름의 영역본에서 건괘와 곤괘의 영역된 명칭이 각각 ‘the Creative’과 ‘the Receptive’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이 세계에 현전하는 기본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는 두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 건괘와 곤괘이다.”라고 옮겨야 마땅하다. 이와 같은 경우는 풀지 말아야 할 것을 친절하게 풀어서 생긴 오역의 일종이다. 이 역서는 우리말 번역이 부드럽다는 장점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르다.

3) 2000년-2004년 5월까지의 번역의 현황과 분석

먼저 비교를 위해서 2000년-2004년 5월에 이르기까지 번역된 문헌들의 목록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가시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번역 문헌이 주제의 다변화가 훨씬 넓어지고 있으며 또한 전문적인 주제를 다룬 문헌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으며 또한 도가 계열의 문헌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다.

- 2000 레이먼드 M. 스멀리안 지음, 박만엽 옮김, 『도(道)는 말이 없다』(1992), 철학과 현실사.
- 2000 조셉 니덤 지음, 콜린 로넌 축약, 이면우 옮김, 『중국의 과학과 문명: 수학, 하늘과 땅의 과학, 물리학』(1981), 까치.
- 2000 양리 마스페로 지음, 표정훈 옮김, 『불사의 추구—도교의 양생술: 호흡법, 방중술, 체조법』(1971), 동방미디어.
- 2001 홈스 웰치·안나 자이텔 편저, 『도교의 세계—철학, 과학 그리고 종교』(1979), 사회평론.
- 2001 A. C. 그레이엄 지음, 이창일 옮김, 『음양과 상관적 사유』(1986), 청계.
- 2001 앤거스 그레이엄 지음, 나성 옮김, 『도의 논쟁자들—중국 고대 철학 논쟁』(1989), 새물결.
- 2001 윌리엄 시어도어 드 베리 지음, 『다섯 단계의 대화로 본 동아시아 문명』(1986), 실천문화사.
- 2001 진영첩 지음, 표정훈 옮김, 『진영첩의 주자강의』(1987), 푸른역사.
- 2002 줄리언 F. 파스 엮음, 김지현 옮김, 『도의 지혜』(2000), 가람기획.
- 2003 라이프니츠 지음, 이동희 편역, 『라이프니츠가 만난 중국』, 이학사.
- 2003 François Jullien 지음, 유병태 옮김, 『운행과 창조』(1989), 케 이시아카데미.

- 2004 J. J. 클라크 지음, 장세룡 옮김, 『동양은 어떻게 서양을 계몽했는가』(1997), 우물이 있는 집.
- 2004 토마스 머튼, 권택영 옮김, 『토마스 머튼의 장자의 도』(1965), 은행나무.
- 2004 프랑수와 줄리앙 지음, 허경 옮김, 『맹자와 계몽철학자의 대화—도덕의 기초를 세우다』(1996), 한울아카데미.

2000년-2004년 5월까지 번역된 문헌의 수는 이미 90년대 번역된 문헌수의 2/3에 이른다. 또한 주제별로 볼 때에도 도교 관련 저술이 5종에 이를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음양오행론과 같은 전문적인 주제의 번역서가 눈에 띄며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 중국학자인 줄리앙의 저술이 2권이나 번역되는 특이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게다가 서구 학계에서의 동양사상 연구사를 논한 클라크의 저술의 번역에 이르기까지 주제의 풍부함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먼저 도교 철학 계열의 문헌 번역부터 살펴보자. 박만엽이 옮긴 『도는 말이 없다』는 저자와 역자가 모두 수리 논리학 및 분석 철학 전공자로서 학문적 관심의 다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또한 우리 학계에서 주로 ‘도장 철학’적 시각에서의 연구가 주류인데 반하여 주로 신비주의적 입장에서 도가를 연구하는 서구 학계의 저술이 많이 번역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오히려 학문적 관심보다는 대중적인 관심의 증폭이 이와 같은 번역서의 출현을 견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 주로 현대 신유가 계열의 중국학자 출신들의 문헌만을 접해 온 국내 학계에서 이와 같은 문헌들의 번역은 도교의 유행이 세계적 현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도교 철학 관련 번역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윤찬원의 『도교의 세계』이다. 이 저서는 69년과 72년에 개최된 국제도교학회의 발표문들을 모아 79년에 발간된 원저를 번역한 것으로, 『태평경』(太平經)에서부터 이어지는 도교의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 학자들의 시각에서 조명하는 유명한 저서이다. 역자는 이에 등장하는 원문들을 『도장』과의 직접적인 대조작업을 거치는 동안 1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을 번역에 소일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즉 역자의 욕심은 단순한 번역서가 아니고 또한 중국이나 일

본, 서구 어느 한 지역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며 세계적인 도교 연구 추세를 보여주기 위해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부족한 세계 학계의 도교 연구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경희태(卿希泰)가 주편한 『중국도교사』의 부록에 실린 해외의 도교 연구의 번역을 추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주석을 달아 소개하고 있다.

표정훈은 이 기간동안에만 2권(마스페로, 진영첩)의 번역서를 내놓았다. 특히 마스페로의 『불사의 추구』는 이미 90년대에 신하령·김태완 공역의 『도교』에서 누락된 부분을 번역하여 마스페로의 유고 저술을 완간하게 되는 의미를 가짐은 물론 도교의 방술을 학술적 차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주자강의』에서는 “주자학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역사적인 나”(7쪽)를 찾아가는 작업의 일환으로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표정훈은 번역 작업이 학술적 작업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책에서도 별도로 <부록: 주희 관련 국내 참고서적>(322-327쪽)을 싣는다. 그리고 그 서두에서 진영첩과는 다른 시각에서 주희에 접근하는 영미권의 두 저서, 호이트 킬만의 것과 줄리아 칭의 저술을 소개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출간된 주자학 관련 저술들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 출신의 중국학자 프랑스와 줄리앙의 두 저서의 번역 또한 눈에 띄는 일이다. 명말청초의 유학자 왕부지(王夫之) 연구서인 『운행과 창조』를 번역한 유병태는 비교 연구에서 빠지기 쉬운 오류에서 벗어난 전형적인 예로써 줄리앙의 저술을 번역한 것이라 하고, 『맹자와 계몽철학자와의 대화』를 번역한 허경은 서구의 근대성 또는 탈근대성—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가 압도하는 현실에서 “서구적 사유와 가치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것에서 벗어나, 균형적인 감각을 갖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11쪽)에서 번역하였다고 그 동기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역자들의 소개는 줄리앙의 저술이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에서 자유로운 서구 학자의 저술로 추천하고 있다.

2003년에 나온 이동희의 『라이프니츠가 만난 중국』은 오랫동안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라이프니츠의 저술을 직접 편집하여 번역한 눈에 띄는 저술이다. 역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라이프니츠의 저술을 모두 모아서 책으로 엮었으며, 이미 번역되어 있는 영역본, 독일어본 주석은 물론 자신의 주석까지 보탬으로써 가능한 한 최선의 성과를 내고자 노력하였다. 또

한 번역에 머물지 않고 라이프니츠의 중국관을 분석한 논문까지 추가함으로써 명실공히 이 분야에 기초적인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클라크의 저술을 번역한 장세룡의 『동양은 서양을 어떻게 계몽했는가』는 오리엔탈리즘적 담론이 우세한 한국의 현실에서 색다른 시각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0-2004년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번역된 저술들의 주제나 전문성, 시각 자체가 비교적 다원화되어가고 또한 번역자들의 전문성이나 번역의 의도 또한 다원화 되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제부터는 시기적으로 논의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전체를 대상으로 논의를 엮어가 보자.

3. 내재화된 오리엔탈리즘과 그 너머까지

이제부터는 번역된 문헌들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번역본들의 수를 분류, 통계내고 이로부터 드러나는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1) 번역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

먼저 80년대 이전과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 기간동안의 번역본의 발행은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번역본수 발행 통계 (재번역 제외)

번역연도별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전체(47)	1	11	21	14
백분율(%)	2%	23%	44%	29%

여기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80년대이래 서구 학계의 동양 철학 관련 문헌의 연구서의 번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

적으로 보면 니담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 I, II, III』, 그리고 김덕중과 이병희의 번역서를 제외하면—이들의 번역 동기는 철학적 혹은 사상적 관심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기에—실질적인 번역의 증가는 87년 이성규의 『고대 중국인의 생사관』의 출간부터 잡을 수 있을 듯하다.

한국 학계의 동양 철학 연구 과정에서 80년대 중·후반은 송영배, 김용옥, 양재혁 등 서구 학계에서 동양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학자들의 활동이 눈부시던 시기였다. 특히 김용옥은 귀국과 더불어 번역의 문제를 철학의 핵심 문제로 제기하면서 사회 각계의 관심을 모았고, 송영배의 『중국사회사상사』(한길사, 1986)의 발간은 서구의 사회과학적 방법에 의한 동양 철학 분석이 얼마나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가를 보여주어 학계의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이로부터 볼 때, 한국에서 서구의 동양 철학 연구서의 번역의 실질적인 기원은 1986년으로 잡아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인다. 이후 90년대에 이르게 되면 번역본의 출간 숫자가 80년대의 거의 두 배로 증가한다.

다음으로는 번역서들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 구체적인 숫자와 백분율은 다음과 같다.

[2] 번역서 경향별 발행 통계

유형별분류	철학사	인물연구	주제연구	비교철학	문명론/세계관	과학사(니담)	문헌
전체(47)	14	9	11	4	3	5	1
백분율(%)	29%	19%	23%	8%	6%	10%	2%

여기서 ‘철학사’ 항목으로 잡은 것은 분명하게 철학사 저술로 명기된 것과 더불어 마스페로, 칼텐마르크 등과 같이 특정 주제에 해당하지만 역사적 연구가 주된 내용인 경우에는 이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 ‘철학사’적 저술은 전체의 29%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여기에 문명론이나 세계관 또는 니담의 과학사 저술까지 포함시킨다면 전반적으로 거의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인다. 중국이나 일본 문헌의 저술들 또한 철학사 저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서 볼 때 아직까지도 한국 학계의 연구 경향은 철학사 연구가 가장 중심적인 테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물 연구의 경우에도 대개는 철학사적 관심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으며, 평가레트와 같은 분명한 주제 의식에 의한 연구는 드물기 때문이다.

인물 연구로 분류한 저술 또한 대체로 특정 인물에 편중되어 있다. 전체 9종 가운데 4종이 공자이며, 왕양명이 2종, 주희가 1종, 장자가 1종, 라이프니츠가 1종이다. 이 가운데 장자를 다룬 토마스 머튼의 『장자의 도』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인물 연구로 보기가 어렵지만 내건 제목이 주는 인상으로 인하여 그렇게 분류하였다. 게다가 여기서는 비교철학 분야로 분류하였지만, 줄리아의 두 저서는 사실 맹자와 왕부지를 다룬 저술로서 인물 연구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인물 연구 가운데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5권이 선진 시대의 인물인 공자와 맹자이며, 주희가 1, 왕양명이 2, 왕부지가 1이다. 이는 500년 주자학의 전통을 이어 온 한국 학계의 학문적 수효에 비추어 볼 때 유학 연구가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서구 학계의 경우 공자와 같은 선진 시대 사상사나 철학사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동양학 분야의 참고 문헌을 놓고 본다면 시대가 내려갈수록 훨씬 다각적이고 숫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우리 학계에서의 서구 학계 연구 성과의 흡수는 지극히 편중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문헌 연구가 『주역연구』 하나에 그치고 있으며, 음양오행과 같은 전통적인 주제에 대한 연구서가 극히 미미한 현실에서 볼 때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동양 철학 연구가 이른바 근대화를 추구하여 왔음에도⁶⁾ 불구하고, 서구 학계의 동양 철학 연구의 번역은 극히 보수적인 문헌들이 주로 번역된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이를테면 2권이 번역된⁷⁾ 줄리아 칭, 뚜 웨이밍 2권, 장군매 1종 2권, 드 배리 2권, 추 차이와 윈버그 차이의 1종, 진영첩의 1종 등 주로 번역된 문

6) 나는 철학 ‘만들기’에서 철학 ‘하기’까지라는 글에서 20세기 한국 학계의 동양철학 연구의 과정이 이른바 서구적 철학 ‘만들기’의 과정이었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생적 오리엔탈리즘의 생산에 지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철학에서 이야기기로』, 제1장 참조.

7) 줄리아 칭이 한스 쾅과 공저한 『중국 종교와 그리스도교』(분도출판사)까지 포함시킨다면 3권이다.

현들은 20세기 한국의 동양 철학 연구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현대신유가와 다를 바 없는 논리와 주장을 지닌 인물들이다. 여기에 대중적인 인기를 지닌 임어당이나 기타 번역서들까지 합한다면, 서구 학계의 연구 시각을 들여오는 것은 국내 학계의 시각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이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기보다 보수적인 국내의 시각을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일환으로서 역할할 가능성이 높다는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은 철학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과학사 저술의 경우 오로지 니담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만이 번역되었으며, 그에 대한 축약판이 계속 번역되고 있다. 니담이 학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걸맞는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베버주의와 같이 서구 근대 문명의 성취를 하나로 모델로 상정하고 접근하는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의 연구서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운 일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서구 학계의 동양 철학 저술에 대한 번역에서조차 전통 사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나 재검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전통 사상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내재화된 오리엔탈리즘의 재생산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또 하나 지적할 만한 사항은 서구 학계에서는 종교나 신비주의 연구로 저술된 것이 우리 학계에서 번역될 때에는 ‘철학’으로 둔갑한다는 점이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줄리아 칭의 『유교와 기독교』이다. 이 저서는 중국 사회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선교적 관점에서 씌여진 저술로서 엄밀히 따진다면 종교학 연구서이다. 따라서 이 책의 제대로 된 제목은 『유교와 기독교—비교 종교학적 연구』라고 해야 마땅할 것이나, 번역본의 제목은 『유교와 기독교—동서 문화의 비교 연구』라고 되어 있다. 종교 연구가 문화의 연구로 바뀌어진 전형적인 사례이다. 저술의 대상이 되는 ‘중국’이 동양으로 바뀌어진 것도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학파나 영역과는 다른 시대와 관련된 점을 살피고자 한다.여기의 통계에서는 철학이나 사상사만을 포함하며, 주제 연구의 경우나 비교 연구의 경우에도 그것이 다루고 있는 시대를 중심으로 분류해 보기로 한다.

[3] 전통적 학파별 발행 통계 (전체 39종)

학파별 분류	고대	위진-당대	송대-명대	청-현대	전체	계
유가	7	·	8	·	1	16 (41%)
도가	1	·	·	·	5	6 (15%)
철학/종교사	2	·	·	2	2	6 (15%)
주제	4	·	v	1	6	11 (28%)
전체비율	14(35%)	·	8(20%)	3(7%)	14(35%)	

상기의 통계 자료에서 보듯이 서구 학계의 연구 성과의 번역의 주된 경향은 주로 고대와 전체를 다룬 저술이 전체의 70%에 이른다. 또한 유학 또는 유교를 다룬 경우가 전체의 41%에 이를 정도로 많다. 여기서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공자와 관련된 저술이다. 이상의 도표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학계에서 수용하는 서구 학계의 연구 성과가 주로 고대와 전체를 다룬 것이 대부분이며, 이 때 전체를 다룬 것으로 분류한 문헌이 대개 고대에 대한 비중이 많고 또 세계관이나 문화를 다룬 것이 주로 고대 문헌에 기초한 연구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학계에서 수용하는 서구 학계의 동양 철학 연구는 주로 중국 고대에 관한 것이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가장 근대적인 학문으로 수용된 철학 연구 분야가 실제로는 가장 고대적인 학문의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현대를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는 문헌은 왕치찬의 『근대 중국 종교의 동향』(이은봉 역), 『현대 중국의 인간 이해』(김덕중 역), 『현대중국철학 50년사』(표정훈)를 제외하면 없다. 물론 이것은 서구 학계에서 연구하는 동아시아 근대가 주로 역사학의 사상사 분야에서 다루어지거나 동양학이라는 이름 아래 학제적 연구로 이루어져 철학 분야의 저술로 간주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학계의 수용 양상이 고대 중국과 송명 유학이라는 두 범주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2000년대에 번역 출간된 서구 학계의 저술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역자들 스스로가 서구 학계의 동양학 연구 시각의 독자성과 그 논의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

고 있음은 물론 저자의 학문적 경향과 서구 학계에서의 위상, 그리고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 등에 대해 고려하며 번역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창일이 번역한 『음양과 상관적 사유』가 그러한 예에 속한다. 본래 『*Yin-Yang and the Nature of Correlative Thinking*』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던 원저에 역자는 같은 저자의 저술 가운데 관련되는 중요한 논문인 「중국·유럽 근대 과학의 기원과 중국어와 관련된 개념 도식과 언어학적 상대주의」⁸⁾를 추가, 번역하여 실어줌으로써 저자의 시각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번역 작업을 마친 후 역자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또 독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한 세기 이상 축적해 왔던 동양 철학 연구의 역사, 동양 철학 뿐만 아니라 동양학 전반에 걸친 학제간의 교류, 이 모든 것이 융화된 장점이 그들의 힘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268쪽) “그레이엄과 같은 연구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서양 철학을 인仁, 의義, 리理, 기氣, 심心, 성性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들이 그들 자신을 더욱 잘 알 듯이 알 수 있을까?”(267쪽) 역자의 문제 제기는 그동안 서구적 방법과 규칙에 따라 동양 철학을 이해해 왔던 것처럼 오히려 거꾸로 동양 철학의 규칙과 방법에 따라 서구 전통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데에까지 나아간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서구 학자들이나 모두 자문화 중심, 자국 중심으로 학문을 하는 것은 똑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측의 강한 민족주의적—현대 신유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민족주의 혹은 국수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데에 있다—시각이 노골적인 저술들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면서 서구 학계의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것이 그간 우리 학계의 정황이었다. 다른 모든 것은 철저하게 서구로부터 배울 수 있지만, 동양 철학만큼은 스스로의 연구 전통을 지켜내야 한다는 자존감은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이었던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하여 보는 태도에 인색하게 만들었고, 전통은 지키고 찬양하고 보전해

8) 이 두 논문은 저자의 유고논문집인 아래의 책에 실려있던 것이다. Angus C. Graham, *Unreason within Reason: Essays on the Outskirts of Rationality*, La Salle, Illinois: Open Court Publishing Company, 1992. 각각 8장과 4장이다.

야 할 것으로만 여기는 분위기를 낳았다.

그간 번역되었던 서구 학계의 문헌의 비율을 가지고 본다면, 대다수의 경우가 성격상 동양 문화를 예찬하거나 동서 문화 화해의 보편적 대안으로, 인류의 도덕적 타락을 치유할 유일한 구원의 이념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이다. 또한 시대적으로는 고대와 송명 시대 그리고 유학 중심이라는 매우 편중된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 동양의 근대 역사나 현대사의 과정에서 유학이 차지하는 의미나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거의 소개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더 나아가 번역된 동양 철학 문헌이 대개 ‘중국’ 관련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양 철학’이라는 범주로 환원시켜가며 마치 중국에 대한 예찬이 ‘동양에 대한 예찬’인 듯이 여기면서 ‘우리 것’으로 동일시하는 모습도 보인다.⁹⁾

철학사 저술은 대개 추상적 개념의 변천 과정으로 이해되며, 그 속에서 각 시대가 지니는 역사적 역동성과 변화는 허상으로 변해버린다. 또 근대가 아닌 고대에의 향수는 현실로부터의 도피이거나 아니면 근대 역사 과정에서 전통 학문이 겪었던 실패를 무마시키려는 미화일 가능성 또한 높다. 물론 2000년 이후 번역된 서구 학계의 문헌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에서 상당 부분 탈피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변화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더욱이 파스의 『도의 지혜』나 토마스 머튼의 『장자의 도』와 같은 명상서 내지 신비주의 문헌의 숫적 증가는 과거의 전통 사상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 비판적 이해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외양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실제의 번역 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두 가지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경전의 신비—너희가 어찌 고전을 아느냐

현대 한국의 학문이 전반적으로 서구화, 근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

9) 『철학에서 이야기로』, 17~21쪽 참조.

구 학계에서 근대적 방법으로 축적된 동양 철학 연구 성과를 외면해 왔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 언어학적, 문화적 편견에 기인한다. 즉 파란 눈의 서양인이 과연 신비로운 한문(漢文)으로 된 동양 철학의 고전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다. 이는 학문적인 논의를 떠나서 도 일상적인 경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얼마 전 한 술자리에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서구 학자들의 동양학 이해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로 올랐다. 분위기는 대충 이런 것이었다. 서구 학계의 ‘동양학’은 아직도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시각과 자문화 중심주의를 탈피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동양 철학에 대한 이해는 ‘초보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 대학원생은 학계에 꽤나 유명한 어느 교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분이 하바드 옌칭연구소에 가 본 소감이 그러하더라는 것이다. 동양 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생의 이러한 어조는 아마도 국내 학자들의 인식을 어느 정도까지 대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막연한 인상에 대한 공감은 꽤 널리 퍼져있는 듯하다.

이러한 막연한 인상을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아마도 “너희가 어찌 고전을 아느냐”라는 단순한 어조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착각이다. 제임스 레그의 사서와 오경의 번역을 구태여 거론하지 않더라도 서구 학계에서의 동양 철학 고전의 번역과 그 역사적 축적은 가히 놀라울 정도이다. 이는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번역에도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고전어 ‘自然’이 요즘에는 대개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번역되는데, 분명 이것은 김용옥의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통나무, 1989, 202쪽)에서 명확하게 지적된 것이고 이로부터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⁰⁾ 하지만 서구 학계에서 주로 통용되는 『노자』 번역서에서는 이것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상식적인 것이었다.¹¹⁾

마찬가지로 영어에서 흔히 ‘non-being’으로 번역되어 온 ‘無’ 또한 존재

10) 물론 이것은 ‘번역어’의 차원이지만 이해의 차원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11) Wing-tsit Chan, tr., *The Way of Lao Tzu : Tao-te-ching*,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63. 이 영역본에서 진영철은 『노자』 17장의 ‘我自然’에 대해 주석에서 “여기서 ‘Nature’라고 번역한 ‘自然’은 문자 그대로는 ‘스스로 그러하다’(self-so)는 뜻으로 ‘자연스럽다’ 혹은 ‘자발적이다’는 의미이다.”(130쪽)라고 설명하고 있다.

론적 무로 이해되지 않았다. 진영첩은 『노자』의 ‘無’를 ‘non-being’으로 번역하였지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도가의 無는 불교의 空을 받아들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지만 도가의 無와 불교의 空은 다르다. 게다가 도가는 無에 매우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중국의 산수화에서 여백이 그림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¹²⁾ 따라서 진영첩이 옮긴 ‘non-being’과 ‘being’은 ‘없음’과 ‘있음’이라는 뜻으로 풀이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적 지식이 없이 영역본을 참고하는 경우 이를 서구 존재론의 ‘무’(Non-Being)와 동일시하기 쉽고, 이 때문에 한 때 『노자』의 무와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이 비교되는 논의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물론 ‘無’를 ‘non-being’으로 번역하는 것이 서구인에게 전혀 오해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스멀리안의 『도는 말이 없다』에서는 “도는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 있다.”(23쪽)이라고 하듯이 부적절한 이해를 서술하면서, 존재와 비존재라는 서구적 존재 물음에 사로잡히지 않은 것이 중국인의 지혜(24쪽)라고 칭찬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서구의 학자들도 문자학적인 분석 또는 언어학적 분석을 첨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려 한다. 예를 들어 그레이엄은 有-無의 의미가 존재-비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there is’와 ‘there is not’이라고 有-無의 의미를 구분한다.¹³⁾ 無가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No-thing-ness’과 같이 표현하는데 이는 ‘어떤 것이 아님’이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논의가 함축하는 것은,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서구 학계에서 번역, 논의되는 동양 고전의 개념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번역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자면 서구 학계의 동양 철학 연구서의 번역에 요구되는 것은, 동양 철학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서양 학계의 동양 철학 논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서구 학계의 동양 철학 연구 성과는 일차적으로 서구 학계의 것이고, 서구 사회의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번역 소개하

12) Wing-tsit Chan, 같은 책, p. 119쪽.

13) 중국 철학에서 有無의 형이상학화 과정과 그에 따른 오해의 문제를 논의한 글로는 다음을 볼 것, 김시천, 「有無論을 통해 본 王弼의 自然과 認識의 문제」, 『시대와 철학』, 1996, 가을호.

는 서구의 동양 철학의 문헌은 기본적으로 원전 중심적이다. 즉 서구의 시각에서 동양 철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문제삼는가가 관건이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원문 인용의 관행이다.

서구 학계의 경우 대부분의 원문 인용은 번역본에 의지한다. 예를 들어 『장자』는 왓슨의 것, 사서의 경우는 레그의 것이 마치 표준판으로 이용된다. 하지만 역자들은 일일이 이를 원전과 대조하여 바로 잡거나 원전의 오타나 오역을 바로 잡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리고 원전의 대조와 인용이 없는 경우에는 불성실한 번역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한국 학계의 대부분의 동양 철학 전공자들은 원전을 찾고 씨름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모든 구절들을 일일이 본인이 번역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은 국내에 번역본이 없던 과거에는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최근 국내에 다양한 번역본이 나와 있는 상황에도 역자들은 원문을 찾아, 그들이 제대로 번역하였는지 오타는 없는지를 확인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하지만 이 보다는 서구 학자들이 각 용어에 대해 어떤 방식의 이해를 하는지, 중요한 용어들을 어떤 식으로 번역하고 또 이를 둘러싸고 어떠한 논쟁을 벌여 왔는지가 더 중요한 논의가 되어야 함에도 그런 경우는 없는 듯하다. 국내에 번역본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번역본을 인용하고 번역에 이견이 있거나 서구 학자의 번역이 다른 경우 이를 역주에서 밝혀주면 그 뿐이다. 번역에 있어서의 원전 중심주의는 연구자와 역자에게 너무나 고통을 안겨주는 악습이며,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⁴⁾

이와 더불어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 그것은 현대 한국어와 서구 어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고전어 ‘情’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레이엄의 『*Disputers of the Tao*』에는 용어 색인과 이름 색인이 별도로 들어 있다. 그리고 용어 색인 가운데 ‘情’의 항목에는 ‘Ch’ing’이라고 발음을 표기하고 “다양하게 번역된다”고 해 놓고서, “우리가 어떻게 묘사

14) 이 주장이 번역의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용의 통일을 주장하는 것뿐이다. 인용 과정에서 축적되는 번역에 대한 논의는 원전의 역자에게 검토할 기회를 주고, 이러한 축적인 보다 나은 번역을 낳게 하는 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거나 규정하는가에 상관 없이 사물이나 상황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 하위 항목에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fact’로, 어떤 사물에 대해서는 ‘the essentials’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과 비교할 때, 도와 관련해서는 ‘identity’로, 『순자』에게서는 사람 내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서 도덕적 혼란을 거치지 않은 상태, 일차적으로 ‘the passions’을 뜻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그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쪽수를 표기해 주고 있다.¹⁵⁾

번역본인 『도의 논쟁자들』에서는 이 모두를 그냥 ‘정’(情)이라 해 놓고서 해당 쪽수에서 다양하게 번역해 주고 있다. 그런데 필자의 판단에는 이 색인의 내용을 정확하게 옮겨주고 우리말 번역어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색인 작업을 분명하게 해 주면 본문에서 불필요한 영어 단어를 넣을 필요성이 사라지고 독자들은 ‘情’이 어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가를 알 수 있다. 헌데 역자는 이와 달리 저자가 똑같이 ‘情’을 ‘identity’로 번역한 것에 대해 331쪽에서는 ‘본체(情, identity)’라고 옮기고 343쪽에서는 ‘본체(本體, identity)’라고 옮기고 있다. 그리고 이를 색인에서 각각 ‘본체(本體)’ 343쪽, ‘본체’(情) 331쪽이라고 두 항목을 설정하여 색인을 달고 있다.

이와 같은 색인은 이해에 상당한 혼란을 주며 343쪽의 ‘본체(本體)’라는 말이 본래 ‘情’을 번역한 것임을 알기 위해서는 아래에 인용된 원문을 살펴봐야만 한다. 이는 번역 작업상의 효율성 또한 떨어뜨리고 독해에도 상당한 장애가 된다. 즉, 고전 중국어나 서구의 동양 철학 용어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읽기에는 매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원전을 인용해 주는 것은 실제로 전문가를 위한 것이고, 일반 독자나 타전공자들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이다. 차라리 원전을 인용하는 수고 대신에 원저자가 사용하는 학술 용어나 번역어에 대한 색인과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고전 한자의 다양한 용례 등을 소개하는 것이 역사의 이해에는 더욱 바람직한 일이다.

이외에 지적될 만한 사항은 인명 등의 표기에 있어서 비표준적 관행이다. 같은 저자의 책인데도 유병태의 책에서는 ‘프랑스와 줄리앙’이라 되어

15) A. C. Graham, *Disputers of the Tao: Philosophical Argument in Ancient China*, La Salle, Illinois: Open Court Publishing Company, 1989. pp. 478-9.

있고, 허경의 책에서는 ‘프랑수아 줄리앙’이라 한다. 또한 표정훈의 『현대 중국철학 50년사』에서는 씨케이 씨시스템에 따라 ‘馮友蘭’이 ‘형 여우란’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중국의 ‘자유’ 전통』에서는 ‘펑유란’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표기 방법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있음은 물론 학술 자료의 유용한 이용 방식인 데이터베이스화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 어떤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통일한 것인가에 대한 원칙의 마련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5. 착종된 근대—근대와 전근대의 이중주

지금까지 우리는 서구 학계의 동양 철학 관련 문헌의 번역의 현황과 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러한 번역서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정리하면 다음 몇 가지로 말할 수 있겠다.

첫째, 20세기 한국의 역사는 전반적으로 서구화, 근대화의 길을 걸어왔다. 사회 각 분야의 제도, 규범, 사회적 의식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주도하는 원리는 이념적으로는 근대 서구적인 것을 구현하는데 있었다. 전통 학문 또한 문학, 철학, 역사학 등으로 나뉘어지고 대학의 학과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제도화되어 전통 학문을 다루게 되었다. 하지만 동양 철학의 영역은 서구적 방법과 제도는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학자들에 의한 연구의 성과는 80년대 이전까지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외면적인 모습과는 달리 전통적인 신념과 가치를 지키려는 듯이 철저하게 ‘동양인 중심주의’를 고수해 온 듯이 보인다.

둘째, 80년대에 이르러서 일부 분야의 몇몇 번역서들이 간간히 나오다가 1986년을 기점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 김용옥의 동양학 유행, 송영배의 『중국사회사상사』의 발행 등은 이에 대한 자극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번역의 동기는 대부분 신선한 자극이나 연구 방법론의 참신함 때문이었다. 그 이전에는 니담의 저술을 제외하면 얼마 되지 않으며 또한 역자들의 전공 분야 또한 비교적 다양하였다. 이는 국내에 해당 분야에 관한 마땅한 교재가 없는 상황이나 수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90년대에 이르면 번역되는 문헌의 수나 종류,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팽창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1986년은 서구 학계의 동양 철학 관련 저술이 국내에 수용되는데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90년대는 비약적인 팽창기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특징적인 점은 전문 번역자가 출현한다는 점과 번역자 스스로가 번역의 과정을 학술 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한다는 점에 있다. 송영배의 모범적인 『공자의 철학』, 표정훈의 번역 활동은 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번역의 과정 자체를 학술 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번역자 스스로가 주체적인 관점에서 저서에 대한 소개와 비평을 가하는 것은 물론 원저자의 사상적 이력이나 서구 학계에서의 위치와 의미, 배경에까지 논의가 미친다는 점이다. 또한 해당 분야의 연구서가 미미한 경우에는 번역서 자체를 자료집화 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국내·외의 관련 자료에 대한 소개나 정리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명실공히 제2의 저술이라는 성격을 잘 보여준다. 윤찬원과 표정훈의 작업은 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하지만 90년대까지의 번역서들은 대체로 철학사 저술이거나 유학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이며 또한 시기적으로 고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강력한 유학 연구 전통을 지닌 한국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소개되는 저자들의 대다수가 동양 전통의 예찬론자이거나 문화 보수주의자로 분류해야 할 학자들이라는 점이다. 이와 맞물려 근대나 현대와 관련된 저술, 동양 봉건 시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지닌 저술은 외면당하거나 소개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서구의 동양 철학 연구서 번역은 외면적으로 볼 때 서구의 학문적 권위를 빌어 전통 학문의 보수적 경향을 정당화하거나 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문제점을 낳게 된다. 중국적 지혜를 선교하는 줄리아 칭, 도덕 종교인 유교의 전교사를 자처하는 뚜 웨이밍, 미래 사회를 위한 화해의 비전으로서의 유학만을 선양하는 드 배리 등의 저술이 주로 소개되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다섯째, 원전 중심주의의 폐해이다. 서구 학자의 저술이 소개되는 경우 대다수의 역자들은 인용된 원문을 찾아 달아주면서, 어느 것이 맞는 번역

인지 어느 것이 오타인지를 밝히는데 큰 공을 들인다. 오히려 원저자의 학문적 배경이나 저술의 동기와 문제 의식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번역의 관행은 독자들에게 저자의 시각이나 논의가 현재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해 준다기보다, 원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동양 철학을 참신하게 바라보게 하는 학술적 의미 이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는 대개의 원저술들이 지닌 편향적인 성격과 결합하여, 동양의 철학 전통을 보다 신비롭게 하면서 동시에 현실과 무관한 것으로 밀려나게 하는 효과를 낸다.

여섯째, 번역상의 관행 또한 문제점이 있다. 동일한 저자인 경우에도 고유명사의 표기가 다르거나 같은 역자인 경우에도 고유 명사의 표기가 바뀌는 등 통일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대개 역자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다. 이는 물론 개개 역자들만의 책임이라 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관행을 살피지 않는 학계 자체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학술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 전산화에 장애가 됨은 물론 개개의 번역서를 읽는 과정에서도 장애가 된다. 색인과 같이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무시되거나 아니면 무원칙적으로 작성되는 것 또한 전문가주의만을 부추길 뿐 진정한 민주적 지식 유통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논의에 근거할 때 아직 동양 철학의 영역은 근대를 지향하면서도 아주 오랜 옛날의 고대에 대한 향수에 사로잡혀 있으며, 또한 현실 문제와 직접 대결하는 문제 의식보다는 고전을 이해하고 그 속에 감추어진 신비하고 보편적인 그래서 미래 인간 사회에 만병통치약이 될 무언가를 찾는 상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양 철학은 일종의 착종(錯綜)된 근대이며, 근대와 전근대가 얹히고 섞혀 있는 기묘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혹 우리는 근대와 전근대가 얹히고 착종된 모양을 두고 포스트모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참고 문헌

※ 여기서 제시하는 자료 목록은 일차적으로 한글 번역에 의미가 있으므로, 순서는 한글 번역본 출간을 기준으로 하고 원저의 출간 년도는 번역서 제목 뒤에 () 안에 표기한다. 원저자의 이름 또한 한글 번역판의 표기 그대로를 따르기로 한다. 이 가운데 재역된 경우에는 *표시로 나타낸다.

- 1976* 풍우란 저, 정인재 역, 『한글판 중국철학사』(1948), 형설출판사.
- 1981 도널드 먼로 지음, 김덕중 옮김, 『현대중국의 인간이해』(1977), 청아출판사.
- 1984 H. G. Creel 저, 이동준·이동인 공역, 『중국 사상의 이해—孔子로부터 毛澤東에 이르기까지』(1953), 경문사.
- 1984 조셉 니담 著, 李錫浩·李鐵柱·林禎堃 譯, 『中國의 科學과 文明 I』(1956), 을유문화사.
- 1984 조셉 니담 著, 李錫浩·李鐵柱·林禎堃 譯, 『中國의 科學과 文明 II』(1956), 을유문화사.
- 1984 조셉 니담 著, 李錫浩·李鐵柱·林禎堃 譯, 『中國의 科學과 文明 III』(1956), 을유문화사.
- 1986 C. P. 피프스제랄드 지음, 이병희 옮김, 『中國의 世界觀』(1969), 민족문화사.
- 1987 마이클 로이, 이성규 역, 『古代中國人の 生死觀』(1982), 지식산업사.
- 1987 왕치찬 著, 李恩奉 譯, 『近代 中國宗教의 動向』(1953), 형설출판사.
- 1988 비탈리 에이. 루빈 지음, 임철규 옮김, 『중국에서의 개인과 국가—공자, 묵자, 상앙, 장자의 사상 연구』(1976), 현상과 인식.
- 1988 H. G. 크릴, 이성규 역, 『공자, 인간과 신화』(1949), 지식산업사.
- 1988 홈스 웰치 지음, 윤찬원 옮김, 『老子와 道教一道의 分岐』(1965), 서광사.
- 1991* 후레드릭 W. 모오트 지음, 권미숙 옮김, 『중국문명의 철학적 기

- 초』(1971), 인간사랑.
- 1993 R. 도오슨 지음, 『공자』(1981), 지성의 샘.
- 1993 막스 칼텐마르크, 장원철 옮김, 『노자와 도교』(1965), 까치.
- 1993* 줄리아 칭 지음, 임찬순·최효선 역, 『유교와 기독교—동서 문화의 비교 연구』(1978), 서광사.
- 1993* 허버트 핑가레트 지음, 송영배 옮김, 『공자의 철학—서양에서 바라 본 禮에 대한 새로운 이해』(1972), 서광사.
- 1994 뚜 웨이밍 지음, 권미숙 옮김, 『한 젊은 유학자의 초상—청년 왕양명 1472-1509』(1976), 통나무.
- 1994* F. W. 모트 지음, 김용현 옮김, 『중국의 철학적 기초』(1971), 서광사.
- 1994* 줄리아 칭 저, 변선환 옮김, 『유교와 기독교』(1978), 분도출판사.
- 1994 F. C. 코플스틴 지음, 안종수 옮김, 『철학과 문화』(1980), 고려원.
- 1996 리하르트 빌헬름 쓰고, 진영준 옮기다, 『주역강의』(1979), 소나무.
- 1996 벤자민 슈월츠 지음, 나성 옮김, 『중국 고대사상의 세계』(1985), 살림.
- 1997 박연수 편역, 『양명학이란 무엇인가』, 경희종합출판사.
- 1997 O. 브리에르 지음, 표정훈 옮김, 『중국현대철학 50년사』(1949), 토마토.
- 1997 Chang Carsun 저, 이진표 역, 『신유학사상의 전개 I』(1958), 형설출판사.
- 1997 Chang Carsun 저, 이진표 역, 『신유학사상의 전개 II』(1962), 형설출판사.
- 1998 Wm. 시어도어 드 배리 지음, 표정훈 옮김, 『중국의 ‘자유’ 전통—신유학 사상의 새로운 해석』(1983), 이산.
- 1998 조셉 니덤 지음, 콜린 로넌 축약, 김영식·김제란 옮김, 『중국의 과학과 문명: 사상적 배경』(1978), 까치.
- 1998 줄리아 칭, 이은선 옮김, 『지혜를 찾아서—왕양명의 길』(1976), 분도출판사.

- 1998 피에르 도딘 지음, 김경애 옮김, 『공자』(1960), 한길사.
- 1998 추 차이·윈버거 차이 지음, 김용섭 옮김, 『유가 철학의 이해』(1973), 소강.
- 1999 사라 알란 지음,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1997), 예문서원.
- 1999 앙리 마스페로 지음, 신하령·김태완 옮김, 『도교』(1971), 까치.
- 1999 뚜 웨이밍 지음, 정용환 옮김, 『뚜 웨이밍의 유학 강의—하늘과 인간 그리고 휴머니즘』(1976, 1979, 1993), 청계.
- 2000 레이먼드 M. 스멀리안 지음, 박만엽 옮김, 『도(道)는 말이 없다』(1992), 철학과 현실사.
- 2000 조셉 니덤 지음, 콜린 로넌 축약, 이면우 옮김, 『중국의 과학과 문명: 수학, 하늘과 땅의 과학, 물리학』(1981), 까치.
- 2000 앙리 마스페로 지음, 표정훈 옮김, 『불사의 추구—도교의 양생술: 호흡법, 방중술, 체조법』(1971), 동방미디어.
- 2001 홈스 웰치·안나 자이텔 편저, 『도교의 세계—철학, 과학 그리고 종교』(1979), 사회평론.
- 2001 A. C. 그레이엄 지음, 이창일 옮김, 『음양과 상관적 사유』(1986), 청계.
- 2001 앤거스 그레이엄 지음, 나성 옮김, 『도의 논쟁자들—중국 고대 철학 논쟁』(1989), 새물결.
- 2001 윌리엄 시어도어 드 배리 지음, 『다섯 단계의 대화로 본 동아시아 문명』(1986), 실천문화사.
- 2001 진영첩 지음, 표정훈 옮김, 『진영첩의 주자강의』(1987), 푸른역사.
- 2002 줄리언 F. 파스 엮음, 김지현 옮김, 『도의 지혜』(2000), 가람기획.
- 2003 라이프니츠 지음, 이동희 편역, 『라이프니츠가 만난 중국』, 이학사.
- 2003 François Jullien 지음, 유병태 옮김, 『운행과 창조』(1989), 케이시아카데미.
- 2004 J. J. 클라크 지음, 장세룡 옮김, 『동양은 어떻게 서양을 계몽했

- 는가』(1997), 우물이 있는 집.
- 2004 토마스 머튼, 권택영 옮김, 『토마스 머튼의 장자의 도』(1965), 은행나무.
- 2004 프랑수와 줄리앙 지음, 허경 옮김, 『맹자와 계몽철학자의 대화—도덕의 기초를 세우다』(1996), 한울아카데미.

* 논문 투고일 2004년 10월 29일/심사일 11월 13일/심사완료일 12월 4일

Entangled Modernity in Korean Scholarship

Modernity in the Korean Translations of Western Writings
of East Asian Studies

Kim, Si-Cheon

Since the 1980s the Korean translations of the western writings of Eastern Asian Studies,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philosophy or the intellectual history, have grown in Korean Scholarship.

Primarily philosophy originated from Western society, but integrated into every discipline of scholarly studies since early twentieth century. Nevertheless, if we examine the Korean translations of western writings of East Asian Studies, we can realize that there was entangled modernity among them.

So to speak, the Korean translations searched not for modernity but for nostalgia of the past.

Subject Sphere: Korean Philosophy, Translation and Orientalism, Modernity

Key words : Philosophy, Translation, Modernity